

#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희망”... 3國, 역내 RCEP 이행 지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4년만에 'ADB 연차총회' 개막

7년만에 韓日 재무장관 회담 열어  
“인적교류 회복, 대화채널 복원하고  
공동이익 창출분야 공조 강화를”

“韓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전망  
수출·투자 등으로 경제회복 기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각국 재무장관 수상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인천 송도에서 나흘간 열린다. ADB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1970년, 2004년에 이어 세번째다.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는 이른 오전부터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대표단과 국제기구,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가 몰렸다. ADB는 이번 행사에 약 5700명가량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 7년만에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

특히 이번 총회에는 약 7년 만에 부활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 이목이 쏠렸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간에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전격 결정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정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26회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회담 이후 수출 규제 정상화 등 양국 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를 풀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추 부총리는 “항공편 추가 증편과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등에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추 부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와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 한중일 재무장관 “3국 경제관계 둔화돼”

이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교류, 정책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제안했다.

앞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

O)는 올해 3국이 경제재개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경제 관계가 둔화된 만큼 관광, 인력, 문화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회복에 기여하자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공동메시지를 통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지지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

트남)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팬데믹을 딛고 빠르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교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 M)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정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기출자를 통해 자금 조성)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3국은 의장국으로 아시아 10개국과의 미래과제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작업반1은 싱가포르가 의장국으로 금융인프라금융을, 작업반2는 중국이 구조적 이슈대응을, 작업반3은 일본이 금융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작업반4)도 핀테크 기술발전을 위해 역내 공동규범을 연구하고, 오픈 뱅킹 기술을 지원한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소비자물가 3.7% ↑... 14개월만에 3%대로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110.80  
신선식품 3.1%, 근원물가 4.6%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고물가 둔화세를 반영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 4.2%보다 0.5%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2월 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올초까지 5%대에 머물렀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수)는 4.6% 올라 전월 4.8%보다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대폭 내려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려 2월 이후 석달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세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세도 물가추세 둔화에 반영됐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0%로 농산물이 1.1%올랐고 축산물은 1.1% 내려 전월의 -1.5%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산물은 6.1% 올랐다. 가공식품은 7.9% 올라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 9.1%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주된 원인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농수산물 수급도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혼다, 5년간 57조 투자 ‘비전2030’ 발표

» 1면 ‘완성차, 미래 모빌리티’서 계속

지리자동차는 올해 초 오는 2025년까지 위성 73기를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갤럭시 스마트 드라이빙’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조정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혼다는 지난 2021년 우주 사업 진출 계획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5년간 약 6조엔(약 57조원)을 투자해 2030년 1톤 이하 저궤도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에도 혼다는 우주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할 로봇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는 위성개발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 산업은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각국의 민간 기업들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자율주행과 원격제어 기술 등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간 우주 개발 노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메모리 수출 확대... 첨단반도체 지원 절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반도체 팹리스기업 수출·투자 회의  
리벨리온 등 팹리스 6개사 대표 참석

300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계·제조·후공정 산업 생태계 강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업계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수출·투자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개발업체인 사피온코리아·퓨리오사 AI·리벨리온, 비전용 AI반도체 개발사 비전넥스트, 자동차용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데이터서버용 가속기반도체 업체인 파두, 이미지센서와 센서용 AI반도체 제조업체인 픽셀플러스 등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6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상반기 중 반도체 수요 기업들의 재고조정 기조가 유지돼 수출과 경영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서버 등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 조정으로 초과공급 추세가 완화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차세대 시장 성장에 따라, 데이터서버 및 엣지 디바이스용 AI(인공지능)반도체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과 기업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셋GPT 등 인공지능 확산으로 수출과 투자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품목에 3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